

《세상의 그늘에서 행복을 보다》

삶, 행복의 근원 찾아가는 긴 여정

글_송보경 기자

평범한 일상 속 어느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진 듯한 막막함을 느낀 적이 있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할 수 없을 만큼 막연한 공포가 밀려왔다. 어떻게 그 상황을 빠져나왔는지는 기억에 없다. 단지 마음에 오래도록 막연한 두려움의 흔적이 남았다.

인생의 '원점' 을 생각하는 작가 소노 아야코. 여행길에 머무른 시나이 반도 사막에서 그녀는 광활한 모래밭 한가운데서 공포를 느낀다. 달도 없는 사막의 밤,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지를, 생명이 시작된, 자아가 출발한 근원을 불현듯 떠올린다.

흔히 생을 '여행' 에 비유하곤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무엇 때문에 시작한 여행인지는 궁금해 하지 않는다. 목표하는 삶과 그것의 성취를 위해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만을 중요시 여길 뿐이다. 누구나가 이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이 위안이다.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공정한 출발선. 하지만 사람에 따라 감상이 천차만별인데다 또 시시각각 현재의 자신이 어떻게 그 모습을 갖게 됐는지 모르기에 여행은 힘겹고도 가치 있다.

《세상의 그늘에서 행복을 보다》에서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와 상반된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을 만났다. 작가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하나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른 채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십 대 아빠와 십대 엄마는 에이즈로 일찌감치 세상을 뜨고 갓난쟁이 아이는 혹시 그 병을 물려받았을지도 모르는 채 친척들의 손에서 키워진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고아들은 그렇게 세상을 이해한다.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오래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누구나 제한된 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원류에 서서 원점을 주시하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은 역사와 시(詩)에 의해 종(縱)과 횡(橫)을 살아간다. 시간의 저편에도 공간의 심오한 곳에도 원점이 있다. 그 원점이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법이다” (208쪽)

때때로 생은 오로지 자신만이 알아채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는 것 같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 시간이 전 생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소노 아야코는 '근원' 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근원과 행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시종 궁금했다. 인생 여정의 '출발지' 를 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

문명인이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생을 대하는 태도에 오만함만 잔뜩 묻히고 있는 건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다. 기아, 질병, 전쟁의 흔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어설픈 감정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책에 담긴 낯선 세계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으로 고통과 행복을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를 지문한다. 나에게 불행이란 무엇이었나. 행복은 어디에 있었나.

나의 일상을 튼튼히 뒷받침 해주었던 주변의 상황을 조용히 둘러본다. 공기처럼 늘 제자리에서 존재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고맙다. 누군가의 말처럼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소소한 일상이 탄탄하게 자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삶의 근원을 잊지 않는다는 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흐릿한 밑그림으로 시작했지만 생의 여정을 길고 넓게 보는 마음. 간혹 찾아오는 절망에 얽매이지 않고 조용히 되 진지하게 발걸음을 내딛어 걸어가는 것. **in**



《세상의 그늘에서 행복을 보다》
소노 아야코 지음 | 오경순 옮김 | 리수 | 211쪽 | 값 8,800원